

# 불자청소년 봉사활동 '소극적'

중·고등학생 사회봉사활동이 의무화, 경쟁화되면서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은 고조됐으나 실질적인 활동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불자들은 그 이유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및 인식 부족, 종단차원의 경제적 지원 등을 꼽았다.

## 박경일교수 서울·부산지역 279명 설문

이같은 사실은 동국대 박경일교수(사회복지학과)가 14일 연세대학교에서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주최로 개최된 청소년자원봉사자 연수교육에서 발표한 '불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96년 1월 서울, 부산지역의 청소년 청년

전문적인 자원봉사 지도자 전무(24.4%) '일조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홍보 미비'(11.9%) '재정부족'(10.6%) 등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결과는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인간구제 사상을 실천하는 불교자원봉사



(17.3%)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했는데 유경험 응답자는 42%가 종단차원의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의 시급함을, 무경험자 50.6%는 프로그램 개발과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우선으로 꼽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원봉사 무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무주상보사관, 자비관, 생명존엄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박교수는 "불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불신임소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청소년불자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들에 따른 불교자원봉사 조직프로그램, 인력마련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도필선 기자

## 건강 365일 <6> 은행

환절기나 겨울의 문턱에 서면 태음인 체질의 사람들은 쉬 떨어질 줄 모르는 감기로 고생을 한다. 말쑥한 양복차림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는 상관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콧물과 기침 때문에 낭패를 봤을지도 모른다.



<영재의원 원장>

태음인 체질은 감기가 들었다 하면 기침은 두말할 것도 없고 가래가 끊고 숨이 찬 천식으로 고생하기 십상이다. 특히 일산화탄소 등 각종 공해물질이 심한 요즘에는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기 일쑤다. <동의보감> 약성기에 의하면 해소 천식을 진정 시키는 데 좋은 은행을 소개하고 있

혈액순환을 증진하는 원천적 생체 에너지인 산소라는 기를 폐가 심이경락이라는 기의 통로를 통해 전신으로 유통시킨다. 그 기가 순환이 안되면 동사에 피가 순환이 안된다. 따라서 혈당이라는 노폐물이 생겨 혈관을 막게 되고, 이는 또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

## 해소·천식·혈액순환 개선 살구씨와 함께 끓여 복용

다. 은행은 또 주독과 여자의 대하증을 호전시키고, 폐장의 타기를 맑게 한다.

특히 은행은 폐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폐라는 장기는 맑은 산소를 흡수하여 피속에 공급해 주고 탁한 탄산가스를 배출시키는 작용을 해 몸안의 피를 정화시킨다. 피가 정화가 안되면 담이라는 일종의 노폐물이 생기게 되고, 이 담이 산소가 공급되는 통로인 기관지에 끼게 되면 기관지염, 천식이 유발된다.

또 우리 몸의 신경순환과

동맥경화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와 관련해 여러 제약회사에서는 혈액순환 개선제라는 이름으로 은행잎을 모아 생크대 성분추출한 약물을 많이 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은행은 우리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인다. 탁한 탄산가스를 모아 생크대 안에 넣어두면 비취냄새가 없어진다. 은행나무의 강력한 살균작용 때문에, 대하증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복용량은 하루 은행 열개에 살구씨 열개를 끓여 먹으면 적당하다.

## 전문지도자 없고 인식부족 주요인 프로그램 개발·자리아타교육 강화

법회 불자 2백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근거로 밝힌 바에 따르면 과반수(165명)의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8.4%가 소극적이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부족'(37.8%)과 '불교계의

동일 실생활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그에 따른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23.8%) '대중매체나 법회를 통해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개선'(19.3%) '종단차원의 지원'

##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수탁운영 청교련 논산지회

불교계가 위탁운영하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대전에 이어 논산에도 문을 열게 됐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 논산지회(지회장 성공스님)가 18일 충청남도 도청으로부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수탁한 것.

논산지회의 충남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청교련 대전지부에 이어 불교계에서는 두번째로 위탁운영하게 된 것으로, 타종교에 비해 열세에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조직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에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뿐

만 아니라 천안 YMCA·YWCA, 한국보이스카웃 충남연맹, 한국청소년마을 충남지부 등 충남지역 5개 청소년관련 단체와 경합을 벌인 끝에 얻은 쾌거에서 청교련 논산지회의 지역적 입지를 굳힌 계기가 됐다.

지회장 성공스님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봉사정신을 고취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과 방법을 제공하는 역할수행과 함께 센터를 중심으로 한 충남지역 청소년 포교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 단신

### 정신대할머니에 점심공양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19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2백90차 수요집회에 참석한 정신대할머니와 관계자 20여명을 여불련 사무실에 초청, 점

심 공양을 했다.

이에 앞서 여불련은 이날 집회에서 '일본은 한국정신대 할머니에게 지행한 인권유린을 인정하고 역사앞에 참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 낭독했다.

### 청소년보호법 준수 당부 인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인천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선일스님)은 13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유흥업소회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각 단체의 입장과 영업방침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만화 백야경 이향원

**문과 나귀와 밭줄을 지킨 하인**

면길을 떠나는 주인이 하인에게 말했다

너는 문을 잘 지키고 저 나귀와 밭줄을 잘 살피도록 해라

주인님 걱정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주인이 떠난 뒤 이곳에서 풍류놀이가 시작됐다

하인은 그것이 보고싶어 견딜수가 없었다

제길 벌어서 도무지...

당장 달려가 보고 싶었는데

이 때문과 나귀의 저 밭줄을 지켜야 하니...

그래!

대문과 나귀와 밭줄을 같이...

하인은 나귀 등에 문을 밭줄로 묶어 놀이터로 갔다

안심하고 가서 구경할 수 있다

그사이 도둑이 집안의 재물을 모두 훔쳐 갔는데

주인이 돌아와 하인에게 물었다

어떻게래 집 안의 재물을 모두 도둑 맞았느냐?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지 않습니까

대문과 나귀와 밭줄을 잘 지켰으니 주인님의 분부대로 한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문을 지키라고 한 것은 재물 때문인데

제물을 도둑 잃었으니 이제 저 문은 어디다 쓸것인가?

어리석은 자들이 이와같이 부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이익(利義)을 탐하여 구하고, 거지로 청렴한 제 조혼한 곳에 앉아 있으나 마음은 오욕의 쾌락에 골리어 스스로 애욕의 밭줄로 얽어맨다 마치 하인이 바른 생각과 깨달음의 도끼인 재물을 잃고 마는 것과 같이...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벽히 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자원 높여, 절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대피어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나 개개인이 부대피어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가이드,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 삼의 현상,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기 위한 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
  -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앙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 주소: 서울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 팩스: 02-375-4143